

도시재생 변화의 시나리오

- 폐소각장에서 문화플랫폼으로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천은 2000년대 이후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소소히 진행해왔으나, 마을주민과 괴리되거나 관 주도 운용 또는 예산 미반영 등의 이유로 연속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왔다. 마을 주민이 주도가 되는 마을 만들기와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인식증진, 참여방법, 실천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가 필요했다. 특히 부천의 도시공간이 서울주변 여타의 수도권 개발도시처럼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분리되어 지역편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도시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의 방법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었다.

부천은 문화도시 또는 문화특별시로서의 입지를 기반으로 창조적인 문화 공간 조성, <만화, 영화, 음악>의 3대 문화산업에 대한 집중, 문화의 시민참여 시스템 강화 등 도시의 비전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문화특별시 부천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 소 1456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구청 3층 302호

전 화 032-325-2118

팩 스 032-325-2186

이메일 greenpuchon21@hanmail.net



평균 주요 문화시설 현황을 비교하면, 경기도 0.36개소, 전국 0.47개소 등 타 도시에 비해 0.37개소로 공연장과 도서관이 부족하다.

이는 면적이 작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탓이겠지만, 21세기 도시화와 문화발전을 고려했을 때 주민주도로 구시가지의 도시재생과 문화시설로의 변모 가능성을 논의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공연장이나 박물관이 시설 수에 비해 소규모이며, 특히 미술관이 전무한 상태로 문화도시의 위상과 문화관광도시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기반구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삼정동 소각장의 경우, 1995년 준공, 가동 이후 1997년 다이옥신 사건(다이옥신 기준치 20배 이상 발생, 40일간 운행중지) 등 부천시 삼정동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서 동네의 트라우마 같은 공간이었다. 2010년 15년간의 운영을 마치고 가동이 중지되고 2013년 완전 폐쇄될 때까지 더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

소가 되었다.

2011년 부천시에서는 소각장을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완전 철거 뒤 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0여년간 시대는 변화했고, 도시재생을 기치로 새로운 변화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특히 문화부분에서 폐 산업 시설을 문화시설로 변모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새롭게 조명되는 분야이다.

다만 도시재생 과정이 관주도의 변화냐 주민참여가 보장된 과정이 있는 변화냐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그 이후의 지속가능성에도 차이를 보일 것이다.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2010년 소각장 운행중지 이후 부천시의 공간변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2011년 삼정동 소각장 변화의 시나리오에 주민주도와 신뢰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안에서 주민참여 방법을 모색하였고, 환경오염 트라우마의 공간(과거의 삼정동 소각장)이 아닌 자랑스러운 문화시설로서 도시재생, 마을재생, 주민재생으로의 길을 찾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부천 구도심 재생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문화 발전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담아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2011년 의제 재작성시 ‘누구나 누리는 문화공동체가 살아있는 부천 - 의제 13. 고쳐서 사는 우리 마을 / 의제 14. 마을이 살아있는 문화 공간 만들기’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고 도시문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다. 더불어 단기간이 사업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변화를 인식하고 공감하여 실천하면서 신뢰의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 주안점을 두었다.

〈도시문화 의제 비전 : 누구나 누리는 문화 공동체가 살아있는 부천〉

부분비전1 : 시민이 디자인하는 도시(도시)

의제13. 고쳐서 사는 우리 마을

- 도시계획수립단계부터 심니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보존형 마을만들기
- 우리동네 필요시설 설치를 위한 시민제안을 활성화한다.

부분비전2 : 창조적인 도전이 가능한 문화도시(문화)

의제14. 마을이 살아있는 문화공간 만들기

- 마을마다 문화활동 공간을 만든다
- 문화복지거점을 마을안에 확보한다
- 주민참여형 거리 공연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한다

의제15. 별별유형에 따른 문화활동지원

-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한 문화예술예산 10%를 확보한다
- 지역문화예술인의 문화나눔 사업을 실천한다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
-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생활화한다



2011 시민이 함께하는 도시문화 의제가 움트다

2011년 1월 중순 부천시는 〈부천시-소각장을 문화예술공간으로〉라는 발표를 통해 부천시의 쓰레기 소각장(삼정동 소각장)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노후화되고 내구연한이 끝나 2010년 5월 폐쇄된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34 쓰레기 소각장을 완전 철거하는 대신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사업 타당성 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심포지엄



개최에 8천 700여만 원을 책정하기도 했다. 또한 6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3차원 영화관, 첨단 미디어아트 상영장, 공예공방, 각종 장르의 전시·판매장 활용 등 시민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할 것으로 여겨졌다.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도 높이고,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공항과 가까워 장기적으로 부천의 문화산업을 선도할 만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맥락이 하나 빠져 있었다. 삼정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사전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1995년 쓰레기 소각장 가동 후 1997년의 다이옥신 오염사건(기준치 20배 노출) 등 인근 주민에게는 이곳이 환경피해 시설이자 거주공간의 혐오시설이자 타인에게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트라우마 공간이었다. 단순히 1~2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1992년부터 20여년 동안 삶속에 굉장한 불편함으로 남아있는 시설이었다. 주민들은 이러한 시설을 당연히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공원 정도로 만들어 지겠지 하고 생각하였는데, 시 행정의 일방적인 사용용도 변경(소각장에서 문화시설로)을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2011년 말 주민의 반대로 사업은 무산된다. 주민들은 완전철거와 공원을 요구했다.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삼정동 소각장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누구나 누리는 문화 공동체가 살아있는 부천> 의제를 만든 것은 아니었다. 2001년 초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설치될 무렵에는 35개 의제를 가지고 활동했으며, 2010년 말 의제 1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부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시민, 행정, 의회, 기업의 입장에서 이전 의제를 검토하고 25개 세부 의제를 만들었다. 여기에 문화관련 의제가 포함되어 있다.

10년 동안의 지방의제21 활동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정립한

의제에 도시문화는 꼭 필요한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누리는 문화공동체가 살아있는 부천>이라는 의제는 2010년도 도시재생 지표개발 사업 시 총5회에 걸친 도시문화위원회와 총4회에 걸친 소위원회를 통해 이전 활동을 검토하며 만들어졌다.

또한 32명이 참여한 제1회 부천도시대학 <fun한 미래도시 부천> 중 제6강에서 시민과 도시문제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미래도시 부천을 그리며 부천의 도시문화에 대한 공감과 향후 활동에 대한 동기가 만들어졌다.

2012 함께 하다.

부천초록마을대학 ‘다가치있는 마을 삼정동’

2012년 경기도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지원을 받아 부천초록마을대학이 삼정동을 거점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 중심의 모니터링, 교육, 의제작성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을 주민회의 5회, 마을쓰레기 성상조사 3회, 녹색가정 만들기 에코맘 주민교육 6회, 삼정동 다문화 축제 초록마을부스 운영, 안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례답사 등의 활동이 진행되었다.

더불어 삼정동마을의제만들기(5주차) 활동을 통해 ‘다가치있는 마을 삼정동 - 의제4. 폐 소각장의 주민커뮤니티장소로서의 재구성’이라는 삼정동 마을의제가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지방의제21에 대한 이해도 없던 주민이 스스로 동네의 변화를 위한 명문화된 의제를 작성하고 그 실천계획을 다듬어 볼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었다.

2013 마을이 되다. 맞춤형 자원순환체계구축사업 '2013년 다가치있는 삼정동 마을 만들기'

2012년에 이어 행정 및 지역복지기관, 의제, 주민의 상호협력을 통해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듬해 지역사회 맞춤형 자원순환체계구축사업이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실제 활동은 결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간 혐오시설로만 알고 있던 소각장의 존재가치에 대한 물음과 그 해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첫 번째로,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삼정동소각장 인근 삼정동 지역주민들이 작성한 마을의제(2012년 작성)에서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일련의 활동(쓰레기 없는 거리, 지구촌 텃밭 등)을 실시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 살기 좋은 삼정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었다.

세부적인 활동으로 삼정동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이 진행되었다. 2013년 6월 9일(일), 6월 29일(토) 2회에 걸쳐, 삼정복지회관에서 지역주민과 이주민 총72명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배출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강사는 부천환경교육센터 자문위원이 맡았다.

이어서 외국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3개 국어(필리핀어, 베트남어, 중국어)로 번역된 쓰레기종량제 봉투 분리배출 설명 브로셔를 제작, 배포하였다. 또한 다문화 축제 때 부스 내에서 안내문 번역본이 부착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배포(1,000개)하였다. 연계 활동으로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EM발효액을 통해 어떻게 자원으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EM을 활용해 천연비누를 제작하였으며, EM발효액을 배포(36개)하였다.

그리고 걷고 싶은 골목길 만들기를 주제로 삼정동 전속 작

가, 지역주민이 함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을 확인한 후 무단투기 예방과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커뮤니티공간 마을평상 제작, 안내판 설치 등을 진행하였다. 마을작가, 마을주민 48명이 함께 의기투합하고 재미와 의미를 찾은 활동이었다.

위의 다양한 활동을 갈무리하고 나누는 다문화 축제 '다 가지(같이) 있는 삼정동 축제'가 2013년 9월 8일(일) 삼정동 도로(삼작로) 일대에서 부천시민과 이주민 등 총 53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지역주민(한국인, 외국인)이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6개국 나라별 음식·문화체험부스를 설치 운영)를 통해 지역 주민 간 이해도를 높이고, 자원순환과 걷고 싶은 골목길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홍보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거주민, 이주노동자, 결혼 이민자), 작가, 행정,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특별하고도 소소한 지구촌 텃밭 조성활동이 삼정복지관 내 자투리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EM발효액을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하여 배추와 갓을 심고 텃밭을 조성하는 활동이었다. 도시문화에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실천의 중요성, 따뜻한 관계의 중요성을 키우는 활동이었다.

2014 마을재생을 논하다

삼정동소각장 재생프로젝트 시민토론회 '모두를 위한 도시,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2013년 말 삼정동마을과 행정의 대타협이 이루어진다. 마을 주민 동의하에 부천시는 삼정동쓰레기 소각장을 부천시문화콘텐츠플랫폼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2014년은 2013년의 결정이 88만 부천시민 전체로 공론화 되



고, 지속가능한 도시문화를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여러 활동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삼정동소각장 재생프로젝트 시민토론회 ‘모두를 위한 도시,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를 진행하였다.

이 토론회의 목적은 ‘문화재생사업의 공론화(공유): 새로운 변화를 위한 동력 도출과 공감대 형성’, ‘적극적 소통으로 도심 유휴 공간(소각장)의 문화재생에서 시민 아이디어 창안(의견 수렴)’, ‘시민참여의 장: 문화재생 사업 기본계획 이행 시민위원회 및 주민 의견 수렴의 장’, ‘관리동(부천시 도시계획과) + 소각동(부천시 문화예술과)의 행정 참여와 거버넌스 구축’, ‘별 볼 일 있는 부천 문화예술의제(agenda) 이행과 행정부서, 문화재단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하기’ 등이었다.

시민토론회는 아래의 단계별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단순한 토론회가 아닌 과정 속에서 주민이 적절히 참여하고 공감하는 활동이어야 했다.

- 1단계: 토론의제 논의 및 선정, 토론방식 선정
- 2단계: 소각장 주민 라운딩, 퍼실리테이터 교육
- 3단계: 토론자 모집(부천지역 주요 그룹 고려)
- 4단계: 실무 준비, 사전 준비
- 5단계: 시민토론회 진행
- 6단계: 평가 제안
- 토론회 기획회의: 4차에 걸쳐 진행(10/22,31일, 11/18, 25일)
- 삼정동 소각장 현장 라운딩 실시(11/20,27일-총 12명)
- 토론회 퍼실리테이터 교육(11/24일 - 총 12명)

토론회의 세부 진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 시 : 2014년 12월 2일(화) 오후 2시~
- 장 소 : 부천시청(3층) 소통마당

- 주 제 : 삼정동 소각장 재생의 공감과 주민아이디어
창안을 위한 타운홀 미팅
- 내 용 : 참가자 전체참여 원탁토론
- 참석대상 : 부천시민, NGO, 기업, 부천시 행정 부서 총 60명
- 주 최 : 부천시
- 주 관 :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천문화재단

■ 프로그램

시 간	프 로 그 램
14:00~14:30	개회식 주요내용 : 참가자 및 내빈소개 - 경과보고 :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본부장 - 격 려 사 : 원혜영 국회의원, 이진선 부천시 문화기획단장
14:30~15:20	아이스브레이킹 그림카드 Talk : "삼정동 문화재생 사업에 관한 느낌/생각은?"
15:20~16:20	원탁토론 Part1. 우리 시 문화/체육시설 , 지도 만들기
16:20~17:00	원탁토론 Part2. 부천미래문화플랫폼 Idea Brainstorming - 우리 부천에는 어떤 문화시설이 더 필요할까? - 넓은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단장하면 좋을까 -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좋을까?
~18:00	원탁토론 Part3. 삼정동 재생사업, 우리가 우선해야 할 가치는?

시민토론회는 많은 인원이 함께 하면 좋겠지만, 진행과정과 시간에 여건에 맞춰 적절한 구성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 60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NGO	테이블 퍼실	기업	노동	문화 예술	복지	언론	주민	지방 정부	청소년	계
9	9	1	2	28	1	3	4	2	1	60



시민토론회는 ‘부천시의 문화체육시설 지도 만들기, 부천미래문화플랫폼 Idea Brainstorming, 삼정동 문화재생 사업 -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가치는?’이란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Icebreaking - 그림카드 Talk :

“삼정동 문화재생 사업에 관한 느낌/생각은?”

part1. 우리 시 문화/체육시설, 지도 만들기

- 그림카드로 삼정동 소각장에 대한 이미지를 연상해 볼 때, 소각장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 궁금함 등이 표현되었으며, 함께하는 이미지의 그림카드로 다양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바람을 나타냈다. 그밖에 소각장에 대한 역사성과 환경적으로 취약한 이미지를 떠올렸다.

- 참가자들이 협업하여 찾아낸 공간을 공유하면서 모르는 공간들이 많았음을 느꼈다. 그러나 다양성과 각 공간들이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문화공간에서의 소비로만 그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문화자족도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화라는 것이 경제적 지리적 차이를 뛰어넘어 누구나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공유했다.

part2. 부천미래문화플랫폼 Idea Brainstorming

- 어떻게 단장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과 기존 시설을 살리면서 재생하는 것, 만남과 휴식과 교육이 함께하는 공간,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공간 등이 제안되었다.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까 하는 의견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험적으로 이루어지

는 공간으로 인큐베이팅, 문화다양성을 보여주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등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프로그램들이 제안되었다. 어떤 문화시설이 필요할까 하는 질문에도 사회적 경제의 인큐베이팅, 주민협동조합, 청년 창업 등이 제안되면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 예술인들을 위한 시설도 제안됐다.

part3. 삼정동 문화재생 사업,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가치는?

- 삼정동 문화재생사업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가치로는 공간과 프로그램의 매력, 시민들의 참여, 결과보다는 진행과정의 중요성과 공개, 삼정동 소각장의 역사성 등이 제안되었다. 그중 가장 우선해야 하는 가치를 참가자 투표로 알아본 결과, 소통, 경제성, 역사, 참여, 환경, 창의성 등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로 선정되었다.

삼정동 소각장 문화재생을 위한 시민토론회 참가자 회고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소각장이 주거지에서 100미터 안에 있어 관심이 많다. 진행되는 과정을 볼 때 생각들이 제 생각과 비슷함을 알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부천만의 창의성과 경제성이 확보되면 좋겠고, 시대 흐름에 따라 무너지지 않고 계속 운영되며, 부천만이 아닌 아시아까지 퍼지고 창조되는 공간으로 됐으면 좋겠다.
- 단순한 토론회인줄 알고 왔는데 굉장히 재미있었다. 그동안 삼정동에 소각장이 있다는 것도 잘 몰랐고,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지 못했음에 부끄럽고 죄송하기도 했으며, 부천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잘못됐

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좋은 문화시설이 되면 많이 찾아가보고 공연도 보고 싶다.

- 이런 주민 토론회에 처음 왔다. 퍼실리에이터로 참여하면서 재미있었고, 지루한 토론보다는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 부천 살면서 소각장이 있는 지도 몰랐다. 이번에 소각장에 대해 알게 되고 라운딩을 하면서 소각장이 모두 꺼려하는 공간이었지만 이제 긍정적인 공간으로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회의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빌바오에 있는 미술관처럼 미술관 하나가 도시 전체가 재생이라는 이미지를 얻은 것처럼 삼정소각장으로 인해 부천이 더 발전하고 재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후 삼정동 마을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삼정동소각장이 문화플랫폼으로서 어떤 형식과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장소는 가까운 인천 아트플랫폼으로 정해 주민이 부담이 적어 참여율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인천도시재생 사업 사례답사는 부천시가 도시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데 도시재생과 주민참여에 대한 현황사례를 조사하고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도시재생은 도시 전체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기존 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한 강조, 문화유산과 자원의 보전,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도시재생의 정책과 계획에 반영된다. 최근 지방도시에서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문화다. 문화예술이 도시 경쟁력에서 중요시되고, 문화예술의 진흥이 도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화도시를 전면에 내세워

지역경제와 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7월 30일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및 관계 주민 12명이 인천아트플랫폼과 수도권산달동네박물관을 답사하였다. 인천아트플랫폼(舊 중구미술문화공간)은 인천광역시가 구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해안동의 개항기 근대 건축물과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조성한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다. 전속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각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연구자들이 창작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예술 창작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수도권산 달동네박물관은 역사의 뒤 안으로 사라지고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60~70년대 수도권산 주민의 삶을 되살리고자 옛 달동네 터에 박물관을 건립하였다. 역사 속에 실존했던 수도권산 달동네 서민의 평범한 삶과 일상을 박물관의 주된 테마로 삼은 점은 우리나라 박물관의 역사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세대 간의 이야깃거리를 만들고 이해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1년 말 삼정동소각장 문화시설 변경이 무산된 과정은 복잡하다. 일방적인 발표와 일방적인 포기, 행정에서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주민이 소외된 상황에서 또 다시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적인 문화시설의 가치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삼정동소각장 변화의 시나리오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를 예측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 행정의 일

방적인 각본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기부여 되어 지속가능한 참여자로서 역량이 강화되고, 주도성을 찾는 과정이었다.

또한 주민의식의 변화를 위한 시나리오,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 유휴공간의 재해석, 재활용, 국가 정책(문화재생산업) 대응, 주민참여 제고, 도시재생 필요성 공감대, 인식 증진, 의제 공론화 등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약회의의 민관 거버넌스 역할을 십분 활용하자는 목표를 두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제 선정으로부터 잠정적 결과까지 마을과 관계하면서 변화의 연속성을 이끌어 온바,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약회의만의 성과는 아니지만 민관 거버넌스로서 협약회의의 역할에 충실하여 행정, 주민, 문화재단, 복지관, 전속 작가 등 다양한 그룹들의 오밀조밀한 관계망 속에서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이뤄왔다. 2014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단지 및 폐 산업시설 도시재생프로젝트'에 선정(부천시, 부천시문화재단)되면서 2013년의 주민, 행정의 긍정적 합의의 결과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

부천시와 문화재단은 앞으로 '판타지아 부천, 문화특별시 부천'을 상징하는 미래형 융복합문화예술공간을 지향하고, 시민의 주체적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밀착형 시민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운영체제의 구축을 통해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과 함께 문화예술 콘텐츠 교육, 창작, 전시가 이루어지는 '판타스틱'한 문화 공간, 세계적인 문화명소를 지향한다고 방향제시를 하였다.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약회의는 2015년 7월의 삼정동 조각장 구조안전진단과 2015년 7월 15일~8월 17일 파일럿 프로그램 <삼정동 조각장 예술 프로젝트: 공간의 탐닉전 - 조각된 기억 프로젝트> 등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계획이며, 최근 새롭게 구성된 도시문화위원

회 위원들은 과거 도시문화위원회 활동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문화 활성화라는 틀에서 소각장 현장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콘텐츠플랫폼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이다. 하드웨어가 갖추어지면, 운영자(휴먼웨어),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등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부천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있는 삼정동소각장에 대한 문화콘텐츠플랫폼 사업을 균형감 있는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삼정동 소각장 문화재생을 위한 시인토론

모두를 위한 도시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부천을 위해,
삼정동 폐소각장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부천시민, 행정, 전문가가 한자리에 둘러 앉아
내일의 소각장을 이야기 해 봅시다.

일시 2014년 12월 2일(화) 오후 2시~

장소 부천시청(3층) 소통미팅

내용 참가자 전체참여 워크숍

참석대상 부천시민, NGO, 기업, 부천시 행정 부서 약 100명

주제 “삼정동 소각장 재생의 가능성과
주변지역에 광안을 위한
타운홀 미팅”

토론회에 앞서 삼정동 소각장의 공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민 라운딩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일시 : 1차 11월 20일(목) 14시, 2차 11월 27일(목) 14시
장소 : 삼정동 소각장 앞

참가신청 및 문의
토론회 및 시민 라운딩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분은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032) 325-2118
부천문화재단 정책팀 ☎(032) 320-6366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부천시,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천문화재단